

# 자원봉사·환경운동에 힘모아

## 불교계 여성단체 새해사업 계획

여성불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자비이며,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환경이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대한불교부인회 등 불교계 여성단체들이 마련하고 있는 99년도 사업 계획에는 양로원·교도소·병원을 찾아가 자원봉사를 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세미나 개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불교계 일각에서는 "매년 똑같은 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여성불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이 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불교계 2/3 이상을 구성하는 여성불자들이 그동안 종단과 사찰의 외호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머물고 있고 여성문제가 사회문제에서 종교 여성과 비교해 여성불자들의 활동이 약하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4월경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와 10월경 '미래지향적 남녀평등의 방향' 등 여성불자의 개별능력과 자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여불련은 조

불교계 주요 여성단체의 올해 사업계획을 살펴본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다도강좌, 한지공예강좌, 성지순례, 보육원 양로원 방문 등을 연중 실시한다. 전통혼례 및 생활한복발표회를 5월과 7월에 각각 개최한다.

또 '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여성불자' 미

례를 실시한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양로원에 거거하다 숨진 연고없는 노인들을 위한 영가 천도제를 상반기 중에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전국여성법사회(이사장 성순경)는 영등포구치소·청송교도소 등의 포교·교화사업을 비롯해 경전역경, 전통예술 의식진송 사업, 고아원·양로원·소년소녀가장지원, 포교사·전법사·법사 자격고시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여성불교회(회장 변광순)는 종교인평화회의에 불교계 여성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여성불교단체, 여성불교회는 올해에도 서울구치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마다 해오던 물품 지원과 법회 동참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북불교여성위원회(위원장 김정자)는 매주 월·목·토요일에 한국사회복지사의 장애아동 돌보기 외에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불교계 유치원에 비디오 상영 및 성폭력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opia.com)

## 양로원·교도소 방문등 '자비행' 조직정비·회원교육·사회참여 미약

직 재정비에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여성불자들이 단체의 입지를 확보하고 사회 활동을 펴기 위해서는 불교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확립 △회원의 교육 및 단체 조직력 강화 △여성불자들의 발원 강화 △종단의 평등한 남녀관 확립 등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래지향적인 남녀평등 방향'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9·10월에 실시하며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도 10월중 실시한다. 이 외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인간사랑 자연사랑-나부터 실천합니다'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 등의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불교부인회(회장 구자순)는 매주 금요일 서울대병원 자원봉사와 월례 성지순

## 명사들의 건강비결 ④



장경학

(前 동국대 법학과교수)

前 동국대 법과대학 학장이며 지난해에는 포교사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입학한 장경학(84세)은 "평생심을 가지고 여유있게 사는 정신 수행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동국대교수 시절부터 40여년간을 한결 같이 아침 5시에 일어나 집 근처에 있는 삼청공원을 산책 한 뒤 참선에 몰두해 온 장경학의 참선 방법은 독특하다.

우선 장경학은 장소에 상관없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명상 음악을 틀어 놓는다. 이어 눈을 지그시 감고 단전에 호흡을 모으면서 허리를 시작하건 즐거운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한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힘으로써 건강한 하루의 출발을 다짐하는데 의미를 둔다. 교수 재임시 찾았던 해외 학술 세미나에 가서도 산책과 참선은 꾸준한 이어졌다.

## 아침 산책후 가볍게 참선 평소 소식·채소위주 식사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 흔한 보약 한첩 먹어본 적이 없어요. 원 없이 연구하고 마음의 중도를 유지하는데 힘쓰다 보니 생활도 즐거워 지더군요."

초발심을 내 지난해부터 불교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장경학은 채식주의자다. "살생한 것을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 화가 생기고 격한 마음이 크게 일어 평상심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부인에게 산나물이나 녹황색 채소를 밥상에 자주 올릴 것을 권유한다. 장경학은 소식 위주의 식생활이 건강에 한몫 한다고 귀띔한다. 식탐을 줄이는 것도 수행이라 생각하며 대신 음식을 오래 씹는다고 한다.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끊임없는 학문 열마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장경학은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에 있다"며 "평소 생활에서부터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생활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간직한다면 건강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건강에 전전 긍정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일침을 놓았다.

김주필 기자(jikim@buddhopia.com)



◇서울 장인동에 마련된 풍경소리 제작실 전경.

## 어린이 찬불가 앨범 8집 준비

음반제작사 풍경소리 4월에 출시

어린이법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찬불가다. 따라부르기 쉬운 찬불가는 새싹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교'이기 때문이다. 이 '가교'를 만드는 곳이 바로 풍경소리(대표 화경님). 교계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찬불가를 만드는 곳이다.

풍경소리는 매년 봄·가을 어린이 찬불가 1집씩을 출시해왔다. 현재까지 7집이 출시됐고, 4월에는 찬불가 8집이 출시된다. 풍경소리 식구들에게 겨울이 가장 바쁜 계절인 것도 이 때문이다.

찬불가 앨범이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3개월. 노랫말을 수집·선정해 편곡과 반주곡을 만들고, 작곡된 찬불가를 녹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모든 작업을 겨울 내내 진행한다.

이중만 실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녹음실에서 살아야 하는 힘든 작업이지만 새싹들에게 찬불가를 정리·제작해 전수한다는 즐거움도 있다"고 말했다.

풍경소리에서 작곡한 찬불가의 인기는 어린이법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대단히 높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회가 1월 연수회를 마치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도교사 58%는 '풍경소리의 찬불가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반응에는 풍경소리 3명의 상근직원과 유익상·최미선 등 찬불가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연구위원 10명의 힘이 컸다. 또 각 사찰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스님 등 1백여명으로 구성된 후원단도 한몫했다. 현재 풍경소리는 '어린이찬불가 8집' 가사를 수집·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 어린이법회 전문교사제 '눈길'

원각사 법륜교사단 결성 교재·울등등 개발

경북 선산 원각사(주지 대해)가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전문화 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원각사는 효율적인 어린이법회 운영을 위해 전문 지도교사들의 모임인 '법륜교사단'을 결성한다. 법륜교사단은 지역내 파리미 타청소년회원 및 청년불자 15~20여명으로 구성된다. 교사들은

만들기, 그리기, 쓰기, 찬불가,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 가운데 한 분야를 맡아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어린이법회

를 지도하게 된다. 법륜교사단 교사들은 담당분야의 전문적인 자질함양을 위해 각종 교사수련회에 참석,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원각사는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재 교구 및 찬불가 울등 등의 발표회도 개최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원각사는 지도교사전문화 제도를 통해 어린이들의 참석율을 높이고 지도교사의 부재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원각사 주지 대해스님은 "어린이법회의 가장 어려운 일은 지도

교사의 활용"이라며 "전문화된 지도교사 체제를 갖추는 것이 새싹들이 포교의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각사 어린이법회는 지난해 7월 21일 여름불교학교를 계기로 창립,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예불, 참선, 교리공부 등을 진행하며, 오후 1시부터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원각사는 특별교육시간에 법륜교사단 전문교사들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원각사는 현재 어린이지도교사 경험자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0546)481-2363

김종근 기자(gamja@buddhopia.com)

## "스님과 상담한적 없다" 70%

원소스님 사찰학살회 3백70명 조사

사찰에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불자중 스님과 상담을 해본 학생은 10명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소스님(삼정사 주지)이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계사, 구룡사, 봉은사, 경주연화선원, 부산정오사, 거창포교당, 해인사 불교학생회 등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3백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님과 전혀 상담을 한적이 없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57%(2백13명)이었으며 상담할 의사가 있는데 스님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12.7%(47명)로 나타났다. 결국 전체 응답자중 70.3%가 스님과 상담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 "더 어려운 이웃 도울래요"

불우청소년 48명 '동심봉사단' 발족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청소년 48명이 봉사단을 결성해 화제다. 도움을 받는 청소년들이 이제는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돕는 봉사자로 거듭난 것이다.

동심(同心)청소년봉사단(단장 이지은)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직무대행 김한곤)와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의 후원으로 28일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청소년단원 및 후원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했다.

봉사단은 방학동안 월 2회, 학기 중에는 월 1회씩 '작은사람실천봉사'와 '청소년 문화활동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마린동 청암노인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했다.

중앙신도회 김한곤 회장직무대행은 "봉사단은 불우청소년들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는다'는 타성에서 벗어나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알고, 자활의 의지를 길러주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소년 단신

### '붓다의 메아리' 축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지부(지부장 김광명)는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청소년문화축제 '제48회 붓다의 메아리'를 21일 오후 2시~6시 중 앙승가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사찰 및 종립학교에 소속된 중·고교생, 참가종목은 국악, 사물놀이, 고전무용, 탐춤 등 전통예술부문과 연극, 현대무용, 풍차, 시낭송, 풍토극, 대중예술부문. (02)720-9139

### 컴퓨터교실·댄스공연

함지골청소년수련원(지우스님)은 3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 컴퓨터교실에는 '워드프로세서 작곡중 과정' 'O.A과정' '컴퓨터 초급' 등이 개설됐다. 수강료는 1만원. 또 수련원은 6일부

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3시 밴드와 댄스공연을 마련하고 영화도 상영한다. 관람료는 무료. (051)405-5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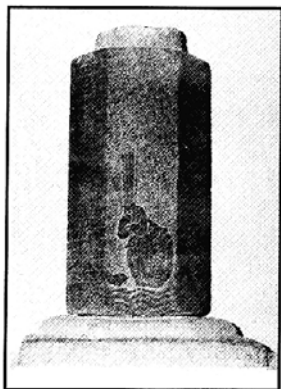
### 경남여불련 문향원 개원



한국여성불교연합회 경남지부(지부장 조용수)는 1월 25일 문향원 개원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문향원은 신령과 수행을 배울 수 있는 여성불자들의 문화 공간.

이번 법회에는 시명스님(창녕 삼성암 주지), 해등스님(양산 내원사 주지), 원모스님(마산 광산사), 창원전문대학 배성희 이사장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0551)283-0108

## 募緣文



서기 817년 이차돈 성사 추모비 <경주박물관소장>

서기 527년 신라왕 경주에서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하는 성스러운 종교적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이차돈 성사님의 순교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순교자이신 이차돈 성사님의 진리를 찾으시며, 진리를 지키시며, 진리가 되는 생활을 보여주신 이 역사적인 순교가 말발침이 되지 못하였다면 어찌 세계의 자랑거리인 신라불교가 태어날 수 있었으며 신라 불교가 찬란한 빛을 발하지 못하였던들, 어찌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자랑스런 역사가 있었으리요.

이러한 거룩한 이차돈 성사님의 순교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기 817년 신라시대에 추모비가 건립되어 현재 경주 국립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차돈 성사님께서 순교하신지 어인 1470년이 흘러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 경내에 이제 다시 그 순교정신을 이어 받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부대중들이 뜻을 모아 기념 추모비를 건립하고자 하오니 인연(因緣)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청철을 보내주실 곳 (동참금은 각자 정성으로)

우체국 700047-0333069 박철일(흥륜사 주지)  
농협 721015-52-239100 박성일(흥륜사 주지)

■ 비문 : 일타큰스님 찬 ■ 글 : 덕봉선생  
흥륜사 이차돈 성사 추모비 건립위원회

경주시 사정동 281번지 흥륜사내

TEL 0561)772-4834, 43-3776

대한불교조계종 흥륜사 주지 해해 합장

## 1999년도 범음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에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로 지정이 되어 불교 교역자의 의견의 전문성과 정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각 종단과 관계없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1. 모집내용

#### ◇실기 강의

학년	강의내용	모집인원	요일/시간	교수진
1 학년	상주권공과	50명	월,수 오후 3~5시	오 송강 스님
2 학년	각배과	50명	목 오후 3~5시	조 인각 스님
3 학년	영산과	50명	금 오후 3~5시	박 송암 큰스님

\*특수과 : 묵탁, 태징, 요령, 부처는법, 바라, 나비춤, 법고춤 등 단, 상주권공과 이상을 수료한 자 (화요일 오후 3~5시 / 교수:한동희스님)

#### ◇이론 강의 : 불교의식이론, 치문(화요일 오후 1시~2시 30분/교수 : 심민준 스님)

2. 응시자격 : 승려,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1)입학원서 (2)이력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4)증명사진 3매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9년 2월 5일 ~ 3월 2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범음대학 교무처 (02)392-3234(범음대 직통) (02)392-3007, 3008
6. 합격자 발표 : 1999년 3월 4일 발표 개별 통지
7. 입학일 : 1999년 3월 8일 오후 2시 (봉원사 설법전)
8. 특 전 : 졸업생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 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 및 정회원 (전수생이상)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전화 392-3234(직통) / 392-3007, 3008 FAX 393-9450